

섬유산업, 7월2일 과테말라 공동포럼 개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경세호)는 7월2일 과테말라 섬유의류수출협회(VESTEX)와 공동으로 과테말라시티 Grand Tikal Furuta 호텔에서 양국 섬유산업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섬유산업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경세호 단장 외에 섬유 주요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사절단과 신원, 영신물산, 최신물산, 세아상역 등 과테말라 주요 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가장 큰 섬유산업을 가진 나라로 현재 과테말라에 투자한 국내 섬유기업은 115사로 섬유수출의 90% 가량이 미국수출이며 40%가 CAFTA-DR(중미자유무역협정) 지역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는 포럼 후 섬유산업협력방안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7월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의류협회와 함께 LA 현지에서 <한국-미국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섬유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어 상생협력 구축과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6/28>